해협에서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경쟁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에스타두 다 인디아와 카르타스 제도

1511년 말라카를 정복한 포르투갈인들은 해협에 새로운 무역 모델을 들여왔습니다. 아시아의 포르투갈 제국인 에스타두 다 인디아(Estado da Índia)는 가장 수익성 높은 항로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통행증 제도, 즉 카르타스*(cartazes)*를 통해 다른 이들의 무역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 선박들은 방해받지 않고 항해하려면 이 통행증을 사야 했습니다.[1] 말라카는 요새이자 세관이 되었고, 그 상업적 헌법도 바뀌었습니다. 술탄국에 부를 안겨주었던 무슬림 상인들이 이제는 새 지배자들의 적이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모델은 해협 무역 전체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슬림 상인들은 교역을 다른 항구로 돌렸습니다. 아체, 조호르, 자바 서부의 반텐 등이었고, 이 지역의 무역은 분산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지배하의 말라카는 여전히 중요한 항구였지만, 술탄 시대에 누렸던 중심적 지위는 잃었습니다. 해협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역사 전반에 걸쳐 되풀이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압에 의존하는 항구는 자신의 부를 좌우하는 상인들, 곧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상인들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VOC와 독점 모델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는 더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비슷한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1619년 세운 바타비아 본부를 거점으로, VOC는 고급 향신료 무역의 독점과 현지 통치자들과의 조약을 통한 군도 해운 통제를 꾀했습니다.[2] 1641년 말라카를 점령한 뒤 네덜란드는 이 도시를 해협 통제와 바타비아로의 무역 전환에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통치자들에게 제한적인 계약을 강요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1784년 리아우에서처럼 무력으로 이를 관철했습니다.

독점 모델은 회사에는 수익을, 상인들에게는 적대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무역을 제한하고 비용을 높임으로써, 이 모델은 상인들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대안 항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냈습니다. 18세기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활동하던 영국 지역 상인(country trader)들, 그리고 군도의 중국인·부기스족·말레이 상인들이 그러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모색이 훗날 래플스가 활용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1613년의 방화와 긴 쇠퇴

조호르와 포르투갈 간의 분쟁 중에 싱가포르섬은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1613년 싱가포르강 하구의 정착지가 포르투갈인에 의해 완전히 불타 버렸습니다.[3] 이 공격은 포르투갈이 조호르의 전초기지들을 파괴하려 한 대(對)조호르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1613년 이후 이 섬은 두 세기 동안 사료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섬은 항해의 지표로서 지도에 남아 있었고 그 해역은 오랑 라웃이 이용했지만, 중요한 시장은 없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어진 싱가포르의 긴 쇠퇴는 싱가푸라 몰락의 교훈을 확인시켜 줍니다. 섬의 지리적 이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곳에 안전한 시장을 세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통치자나 세력이었습니다. 해협 남부의 무역은 말라카, 수시로 옮겨 다니던 조호르의 수도들, 그리고 리아우로 흘러갔습니다. 섬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정치적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영국의 지역 무역과 페낭

그 변화는 영국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동인도회사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상인으로 불리던 영국 민간 상인들은 인도 상품, 즉 면직물과 점점 더 많은 아편을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항구로 실어 날랐습니다. 광저우로 가는 항로가 해협을 지났기 때문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통제 밖에서 선박이 피항하고, 수리하고, 교역할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해답은 말레이 반도 서해안 앞바다의 섬 페낭이었습니다. 프랜시스 라이트가 1786년 크다 술탄으로부터 이 섬을 획득했습니다.[4] 페낭은 자유항으로 선포되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해협 북부에 위치한 탓에 중국으로 가는 남쪽 항로와 너무 멀어서,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는 교통을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중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지배 아래 들어가자, 영국은 말라카와 아시아의 다른 네덜란드 영토를 점령했고 평화가 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5] 1818년 말라카와 자바가 네덜란드에 반환되면서 네덜란드가 해협을 통제할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대중국 무역이 네덜란드의 세금과 제한에 놓일 위험도 커졌습니다.

왕위 계승 분쟁과 1819년의 기회

조호르-리아우 술탄국의 정치적 분열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812년 술탄이 사망하자, 그의 두 아들 후세인과 압둘 라만 사이에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났습니다.[6] 부기스 파벌과 이후 네덜란드의 지지를 받은 압둘 라만이 리아우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서 즉위했고, 장남인 후세인은 배제되었습니다. 한편 조호르 본토와 싱가포르 섬을 책임지던 수장 테멩공 압둘 라만은 1811년 거처를 싱가포르강으로 옮겼습니다.[7]

래플스의 원정대는 전날 세인트존스섬에 상륙한 뒤 1819년 1월 29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협상할 의사가 있는 말레이 수장과, 술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왕위 청구자를 발견했습니다.[8] 술탄 후세인 및 테멩공과 체결한 1819년 2월 6일의 조약으로 동인도회사는 섬에 상관(商館)을 설치할 권리를 얻었습니다.[9] 협정의 세부 내용과 1824년의 조약 체제는 다음 두 장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영국의 건설이 수 세기 동안 해협을 형성해 온 바로 그 힘들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점만 짚어 두면 충분합니다. 외부 세력 간의 경쟁, 현지 권력의 분열, 그리고 공정한 조건으로 교역할 수 있는 항구를 찾는 상인들의 모색이 그것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쟁은 분할로 끝났습니다.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은 조호르-리아우 세계를 싱가포르 해협을 따라 나누었습니다. 남쪽의 섬들은 네덜란드의 세력권에, 반도와 싱가포르는 영국의 세력권에 들어갔습니다.[10] 하나의 문화적·상업적 공간이었던 바다를 가로질러 정치적 국경이 그어졌습니다. 이 국경은 지금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인도네시아와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책 제1부에서 다룬 국경 너머의 관계는 그것이 나누어 놓은 공동의 역사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

1. 에스타두 다 인디아의 *cartaz* 제도에 관하여는 Sanjay Subrahmanyam, *The Portuguese Empire in Asia 1500–1700: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제2판,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2 참조. ↩
2. VOC는 1602년 설립되었고 1619년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세웠음. 군도에서 회사의 독점 전략에 관하여는 Femme S. Gaastra,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Expansion and Decline*, Zutphen, Walburg Pers, 2003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Wikipedia, “Temasek”(2026년 9월 접속): “A settlement there was finally burnt to the ground by the Portuguese in 1613.” ↩
4. 프랜시스 라이트는 1786년 크다 술탄과의 약정에 따라 페낭에 영국 정착지를 세웠음. Wikipedia, “George Town, Penang” 및 “Francis Light” 참조. ↩
5. 영국군은 프랑스 혁명 전쟁 중이던 1795년 말라카를 점령했음. 아시아의 네덜란드 영토는 1814년 영국-네덜란드 협약에 따라 반환되었고, 말라카는 1818년 반환되었음. ↩
6. Wikipedia, “Johor Sultanate”(2026년 9월 접속): 1812년 술탄 사망 후 형제인 후세인과 압둘 라만 사이에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음. ↩
7. Wikipedia, “Founding years of modern Singapore”(2026년 9월 접속): 테멩공 압둘 라만은 1811년 조호르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음. ↩
8. Wikipedia, “Founding years of modern Singapore”(2026년 9월 접속): 래플스의 원정대는 전날 세인트존스섬에 상륙한 뒤 1819년 1월 29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음. ↩
9. Wikipedia, “Founding years of modern Singapore”(2026년 9월 접속): 이 협정은 “was ratified with the Treaty of Singapore signed on 6 February 1819”. ↩
10. Wikipedia, “Johor Sultanate”(2026년 9월 접속):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은 “ultimately partitioned the sultanate’s territories”.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